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음 11월 27일) 제29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예타조사 ‘3관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도내 투자 대규모사업 3건 예타 통과

전북도가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는 성과에 이어, 전북에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모두 통과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이뤘다.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기재부 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인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전북도 사업 3건이 모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도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끊임없는 대형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예타 관문을 두드려 왔으며, 올해 선정된 3개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이 기재부 예타조사 진행중이었다.

올해에도 일괄예타 통과 1건, 예타대상 선정 3건 등 꾸준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3건 모두가 통과됨으로써 향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대아)-새만금 신항만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공항(2028년)·신항

(2025년)과 함께 주요 물류교통망으로서 새만금 개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로 새만금항에서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해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새만금지역 내부 개발 촉진과 함께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새만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서 새만금 고유의 자연생태 경관을 창출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은 새만금 간척지역 내 염생식물 군락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복원·번식처를 마련하고 아울러, 전시·체험형 생태관광 및 환경 교육·연구를 위한 국제생태환경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타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지난 8월 준공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예타 통과로 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돼 5개 시·군 약 130만 도민에 대한 대규모 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지난 1998년 준공 이후 20여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전구간 단선 관로로써 단수 사고의 빈도가 높아 사고 시 5개 시·군 약 130만명에 대한 대규모 단수로 막대한 피해 발생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사고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 등에 대한 적기 점검으로 예방적 관리가 가능해 대규모 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며, 향후 전북 미래 먹거리가 될 대형사업의 예타 통과까지 달성함으로써 다른 어느 해보다도 커다란 수확을 거뒀다고 피력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국가예산 최대 확보에 이어, 예타 사업 3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트리플 크라운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하나의 뜻으로 끝까지 노력한 결과이며, 당당한 전북 몫 찾기로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북도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조화로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9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얼굴 없는 천사가 전달한 성금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온 ‘얼굴없는 천사’

“소년소녀가장 위해 써달라” 노송동 성산교회 앞 트럭 안에 상자 놓고 가... 2000년 이후 22년째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22년째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 5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남성의 목소리로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천사는 “성산교회 오르막길 부근에 있는 트럭 적재할 위에 박스를 놓아주세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최영민 노송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목소리로 보아 40대 남자로 보였다”면서 “미처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중년 남자와 통화내용에 따라 확인해보니 성산교회 앞 트럭에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폐지저금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7,009만 4,96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2년째 총 23차례에 걸쳐 물레 보내 준 성금은 총 8억872만8,110원에 달한다.

이날 천사가 남긴 편지로 보이는 A4용지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씨체로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목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교를 통해 58만 4,000원이 든 폐지저금통을 노송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사라져 불리게 된 이름으로,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전주는 해마다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의 행적을 좇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시민들이 늘면서 ‘천사도시’로 불려왔다.

이와 관련,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주변 6개동이 함께 천사축제를

열어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숨은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는 주민센터 주변에 기부천사 참터를 조성하였고, 옆 대로는 ‘천사의 길’, 인근 주변에는 ‘천사마을’로 이름이 붙여졌다. 2017년에는 천사의 길을 따라 천사벽화가 그려졌고, 2018년에는 동 주민센터 입구에 천사기념관이 조성됐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6,158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해왔으며, 노송동 저소득가정 초·중·고교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수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으며,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천사시민들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이 해결한다

전북도, 전기구동 플랫폼 활용 지능 제어기술 개발 지원 충전 인프라 문제 해결 기대... 현재 2차년도 사업 추진 중

차세대 모빌리티인 전기차 급증으로 발생하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자율주행 충전 서비스 로봇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전기구동 플랫폼 활용 지능 제어기술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5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하는 본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며, 도내 2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올해 10월말 기준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28만대, 수출은 31만대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향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는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인프라 보급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충전시설 사용자 간 잦은 마찰이 빚어지는 등 사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도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자율주행 충전 로봇과 배터리 이송 카트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구동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중인 충전 로봇의 구동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전기차량 주차 후 전용 충전 키트를 연결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명령을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호출에 따라 충전 로봇이 배터리 카트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 충전 키트와 연결하고, 완충 후 충전 스테이션으로 자율 복귀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이 지난 11월(주)인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세대 전기기술 교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참여기업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2’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로봇 데모 시연과 상용화에 대비한 보완·점검을 통해 ‘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술개발이 자동차 이외에도 농기계, 특장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도내 기술·사업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지난해 지정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군산 강소특구와 함께, 시장 지향 기술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